

## 역할연기



모둠별로 상황 카드를 하나씩 뽑은 후, 적당한 타임아웃 기법 및 언어적 기법을 선택하여 역할극을 만들어 봅시다.

### 【진행방법】

1. 모둠별로 상황카드를 하나씩 선택한다.
2. 모둠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한다.
3. 주요대사를 작성하고 연습한다.(역할연기 총 분량은 1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
4. 모둠별로 학급 앞에서 역할 연기를 한다.
5. 다른 모둠은 발표 모둠의 역할연기를 보면서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체크한다.

모둠명	사용된 타임아웃	적극적 경청 및 언어적 표현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를 마주보면서 대화 (○, ×)</li> <li>□ 대화 내용에 맞는 표정 (○, ×)</li> <li>□ 고개 끄덕임과 같은 알맞은 신체표현 (○, ×)</li> <li>□ “아!, 그래!” 등의 적당한 언어적 호응 (○, ×)</li> <li>□ W-I Message 사용 (○, ×)</li> <li>□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반응 (○, ×)</li> <li>□ 서로 win-win하는 결과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를 마주보면서 대화 (○, ×)</li> <li>□ 대화 내용에 맞는 표정 (○, ×)</li> <li>□ 고개 끄덕임과 같은 알맞은 신체표현 (○, ×)</li> <li>□ “아!, 그래!” 등의 적당한 언어적 호응 (○, ×)</li> <li>□ W-I Message 사용 (○, ×)</li> <li>□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반응 (○, ×)</li> <li>□ 서로 win-win하는 결과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를 마주보면서 대화 (○, ×)</li> <li>□ 대화 내용에 맞는 표정 (○, ×)</li> <li>□ 고개 끄덕임과 같은 알맞은 신체표현 (○, ×)</li> <li>□ “아!, 그래!” 등의 적당한 언어적 호응 (○, ×)</li> <li>□ W-I Message 사용 (○, ×)</li> <li>□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반응 (○, ×)</li> <li>□ 서로 win-win하는 결과 (○, ×)</li> </ul>

### 【타임 아웃의 예】

- ‘그만’ 외치기
- 유쾌한 생각이나 즐거운 상상하기
- 심호흡 하기, 긴장 이완 훈련하기
- 셀프토크 하기
- 다른 곳으로 생각 돌리기
- 기분 전환하는 활동하기



## 역할연기 상황카드

### 【상황1】

엄마는 저녁을 드시면서 또 옆집 진혁이랑 나를 비교한다. 진혁이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하고 성적도 좋단다. 이번 중간고사도 몇 개 틀리지 않고 잘 쳤는데 ‘너는 그게 점수냐’고 난리다. 성적도 좋지 않으면서 스마트폰은 손에서 놓지도 않고 게임하고 친구 삼았냐고 빈정대신다.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끝이 없다. 속이 답답해지면서 갑자기 열이 확 난다.

### 【상황2】

영미는 지난 월요일 급하다면서 만원을 빌려갔다. 이번 주말에 친구 생일이어서 선물을 사려고 모아둔 돈인데, 다음날 갚겠다고 빌려가서는 오늘이 금요일인데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토요일 돈 쓸 일이 있으니 꼭 오늘 갚아 달라고 하니, 꼴랑 돈 만원으로 생색낸다고 도리어 나한테 짜증을 낸다. 나참! 나보고 어찌라고..

### 【상황3】

내 짝 민아는 말을 걸때 나를 툭툭 치거나 내 팔을 꼬집는다. 내가 만만해서 그런지 싫은 내색을 해도 계속 그런다. 심지어 웃을 일이 있으면 나를 막 흔들면서 웃는다.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는지 머리도 아프고 몸도 쭈셔서 옆드려 있는데 또 치면서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한다. 내가 아픈 것은 안중에도 없고 저만 생각하는 민아에게 갑자기 짜증이 났다.

### 【상황4】

민성이는 항상 약속시간에 20분 정도 늦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 오늘도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만나서 도서관에 가기로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시간 맞추어 나온다고 아침도 먹다말고 나왔는데 전화도 받지 않는다. 너무 늦으니 화도 났지만 걱정도 되었다. 그냥 혼자 가려는데 멀리서 민성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걸어오고 있다.